



여행 관련 사이트 순위 대거 상승

10월에는 여행 관련 사이트들의 순위가 대거 상승했다. 가을을 맞아 여행객이 증가했으며, 주5일 근무의 확산으로 여가 생활이 확산되면서 여행사, 리조트 관련 사이트 방문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기준 인터넷 여행사 사이트 중 1위는 투어피아(tourpia.com)로 순방문자수는 9월보다 15만명 증가한 총 70만명으로 측정됐다. 투어피아는 전체 순위에서도 전월 559위에서 435위로 상승해 많은 여행객들이 인터넷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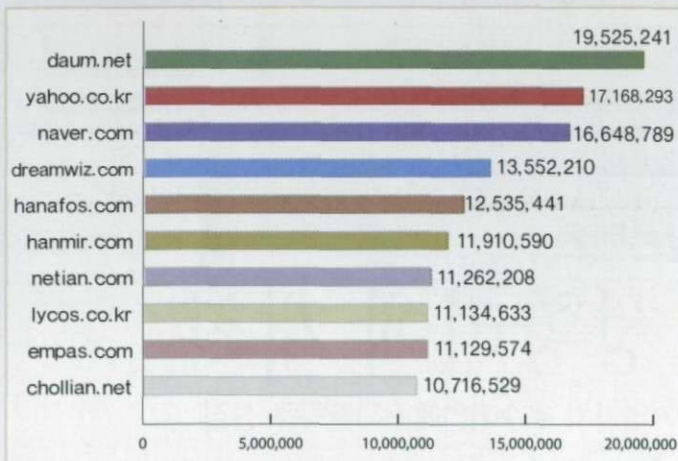
이 외에도 대부분의 중상위권 여행사 사이트 순위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위를 기록한 투어익스프레스(tourexpress.com)는 전체 순위 821위에서 660위로, 넥스트투어(nexttour.co.kr) 1001위에서 위로 772위로 뛰어올랐다. 또한 투어포털(tourtotal.com), 투어가이드(tourguide.co.kr) 등 다수의 여행사 사이트들의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여행사 사이트들의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콘도 사이트도 여행 사이트와 함께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화리조트(hanwharesort.co.kr), 지산리조트(jisanresort.co.kr), 무주리조트(mujuresort.com), 피닉스파크(phoenixpark.co.kr) 등 대표적인 콘도 사이트들의 순위가 전월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여가 문화가 확산되면서 여행 관련 시장의 팽창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여행사들의 방문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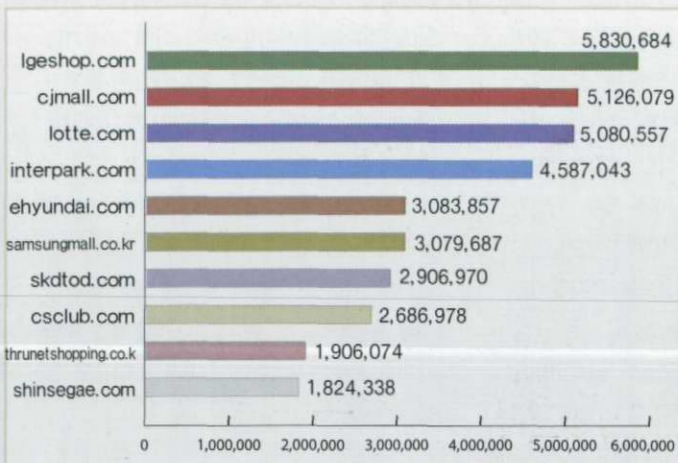
(자료 : 코리아 클릭)

■ 국내 인터넷 사이트 카테고리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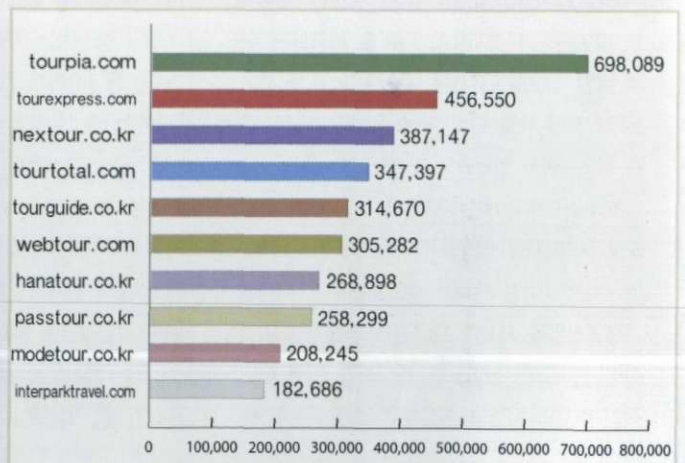
▶ 검색포털/종합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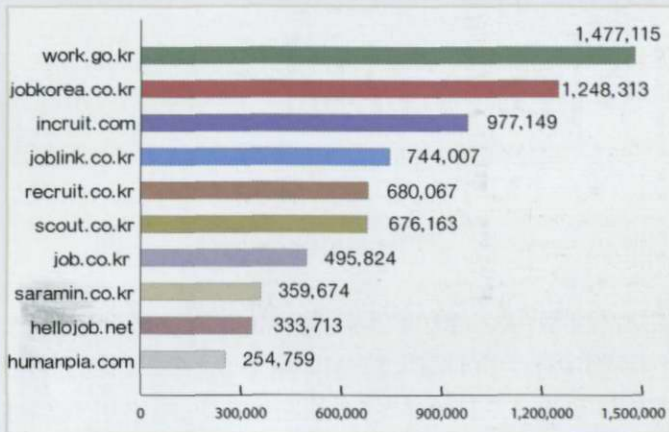
▶ 종합쇼핑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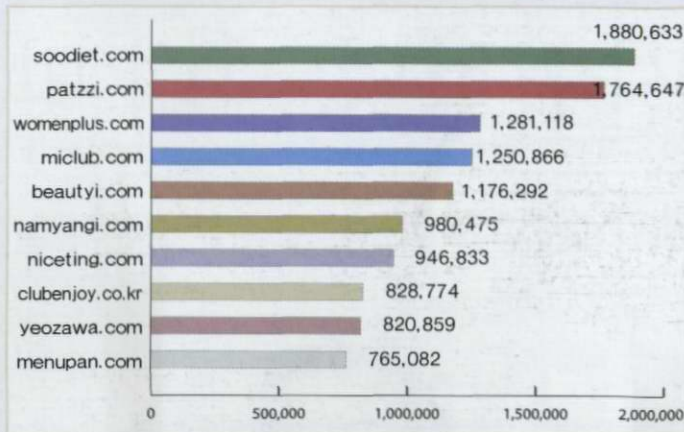
▶ 인터넷여행사



▶ 구인/구직



▶ 결혼/여성/육아



초고속인터넷 1000만 돌파 ... 이동전화가입자 증가세 '주춤'

지난 98년 6월 두루넷이 케이블모뎀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4년 만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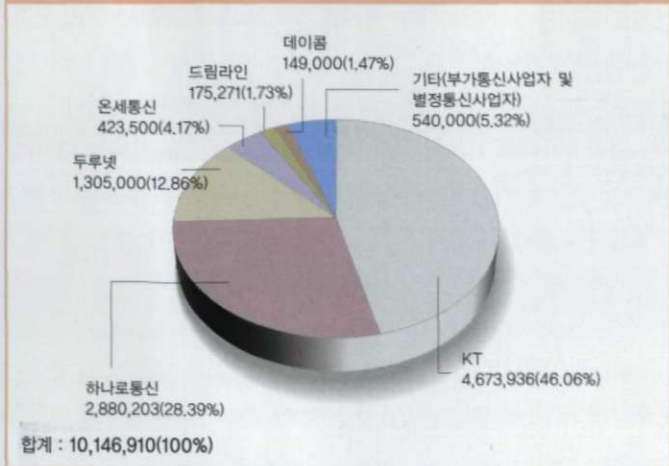
정부와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1000만 가입자 시대를 맞이해 자축행사를 여는 등 한껏 고조된 분위기다. 김대중 대통령은 11월 7일 정통부에서 마련된 '초고속인터넷 1000만 가입자 돌파 기념행사'에 참가해 "초고속인터넷 1000만 가입자 돌파는 우리 국민의 진취적인 역동성과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라며 "1000만가입자 돌파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선진 정보통신국으로 우뚝 서는 귀중한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해외 언론들 역시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에 대해 '기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세계 각국은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극찬했다.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은 한국의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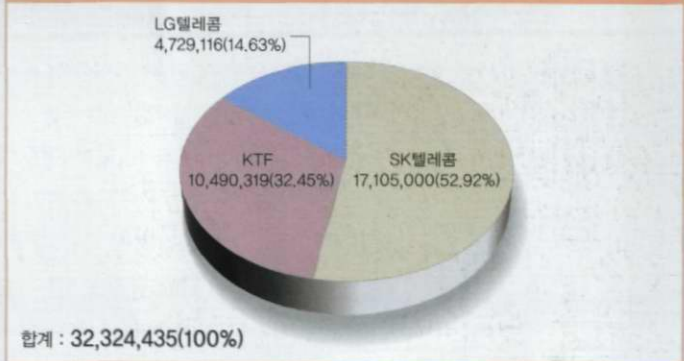
적'이라는 표현하며 "한국의 정보화 정책을 영국정부가 벤치마킹해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디언지는 특히 한국의 성공요인을 정부의 비전과 헌신, 교육가치에 대한 국민의 믿음, 높은 주택 밀집도, PC게임에 대한 열광 등으로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지난 9월 순증가입자가 75만을 넘었던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지난 10월 순증가입자가 24만명으로 급감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특히 SK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고 지난달 20일부터 신규가입자 모집이 중단되면서 이동전화가입자 수는 증가세가 대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보급 현황 (단위 : 명)



■ 이동전화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0월 가입 현황		2002년 10월말(명)	점유율(%)
	증감(명)	증감율(%)		
합계	243,730	0.75	32,324,435	100
SK텔레콤	108,000	0.63	17,105,000	52.92
KTF	112,081	1.06	10,490,319	32.45
LG텔레콤	23,649	0.50	4,729,116	14.63